울산 백양사, 태화문화체험관 건립한다

4월 1일, 백양사 건립부지서 업무협약

30년 숙원불사로 진행
지하2층, 지상3층 건물
국제명상센터 등 위치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불교문화를 널리 알려갈 복합문화공간 태화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백양사(주지 산옹)는 4월 1일 태화문화체험관 건립부지에서 '태화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설명회 및 협약식'을 갖고 시삽 등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을 비롯해 울산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산옹 스님, 정관암 대활 스님, 여여선원 효암 스님, 성불사 혜안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신흥사 종현 스님, 석남사 일영 스님, 내원암 진응 스님 등 지역스님과 송철호 울산시장, 박태완 중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행사로 헌다와 헌향, 선학무 공연과 함께 개식선언, 내빈소개, 국민의례, 시삽산신제, 사업설명회 영상상영, 사업 질의응답, 격려사, 기념사, 축사, 협약식, 시삽,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백양사 주지 산옹 스님은 "울산불교계 30년 숙원인 태화문화체험관이 이날 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태화문화체험관에는 교육원 방송국 국제명상센터전시실, 인성교육장, 문화, 예술, 전시 등 종합 공간이 들어서 꿈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과 일상에 지치고 힘든 이들을 위로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울산 백양사에 모인 사부대중이 태화문화체험관 건립 시삽을 하고 있다.

스님은 이어 "코로나라는 복병에 힘들어 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무엇으로 위로할까 고민했다. 꽃나무 몇 그루를 법당 앞에 심고, 보는 이로 하여금 잠시나마 미소 짓는 얼굴이 되기를 발원했다"며 "체험관이 한 송이 꽃이 되어 시민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종간이 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격려사로 "인간의 도리에 충실하고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문화공간으로 체험관이 자리하길 바란다.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강조하며 사람, 예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울산의 행복장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철호 울산시장 축사에서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공간과 체험공간으로 힐링하는 태화문화체험관이 되고 함월산 끝자락 천년고찰 백양사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관광벨트화로 울산의 밝은 미래와 희망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양사 맞은편 주차장 부지에 건립되는 태화문화체험관은 울산불교 연구와 문화를 널리 알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백양사 주차장(중구 성안동 831번지)에 위치한 6202㎡ 규모 부지에 연면적 6800㎡,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체험관 1층에는 문화예술공연장, 전시체험관, 어린이놀이방, 컨벤션홀이, 2층에는 사찰음식 레스토랑, 카페, 공유 사무공간, 사무실이, 3층에는 국제명상센터, 문화교양대학 등이 들어선다.

표충사, 제557회 사명대사 춘계향사 개최

4월 4일 사부대중 운집
진각 스님 "호국의지" 강조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는 4월 4일 표충사 일원에서 제557회 사명대사 춘계향사를 봉행했다.

이날 향사에는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 前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법선 스님, 중앙종회의원 효림 스님, 백담사 주지 삼조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울산 내원암 진응 스님, 용궁사 정무 스님 외 지역스님과 김성규 밀양부시장, 이원효 유도회 밀양시 지부회장, 김영환 밀양향교 전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밀양 표충사는 4월 4일 사명대사 춘계향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명종5타, 삼귀의, 반야심경, 종사영반, 헌다, 헌화, 유교제향, 추모사, 축사, 주지스님 인사말, 화환소개 및 공지사항,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밀양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명 스님의 호국정신을 이어 받아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후손들에게 전쟁이 없는 나라를 물려주는 것은 책무"라고 강조했다.

통도사 前 주지 원산 스님은 추모사에서 "사명 스님의 유업을 기려 나라를 발전시키고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하자"고 서원했다.

김성규 밀양부시장은 "춘계향사에서 인사하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불교문화를 꽃피운 표충사에 호국충혼 정신이 면면히 이어져서 시민들의 안녕과 발전에 기여하는 수호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안동 법림사의 가치 탐구 나서다

경북불교문화원, 3월 31일
법림사 연구 학술포럼 개최

경북불교문화원(이사장 호성)은 3월 31일 안동청소년문화센터 4층 대강당에서 '안동 구 역사(驛舍)에 묻힌 법림사의 가치'를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학술포럼에는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을 비롯해 부주지 정우 스님, 안동 대원사 주지 도륜 스님, 박순 경북불교문화원 상임이사, 정의우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교육문화 부장, 김성동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관장 등이 참석했다.



학술포럼에 모인 사부대중이 법림사 연구에 뜻을 모았다.

이날 등운 스님은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존하는 것은 삶과 예술에 대한 문화의식을 고양시켜 모두가 지혜롭게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자 안동의 소중한 가치를 보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법림사지' 원형복원이 모색됐다.

△전성건 안동대 교수의 '법림사 오층전탑과 화엄세계' △태지호 안동대 교수의 '법림사지 전탑을 활용한 불교문화유산의 콘텐츠 방안 제언', △신호림 안동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사라진 이야기의 흔적: 법림사와 오층전탑의 편린' 등이 발표됐다.

한편 경북불교문화원은 불교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불교를 넘은 문화운동 전개 등을 목표로 설립됐으며 그동안 경북 한글서체 개발, 훈민정음 해례본 찾기 발굴조사 등을 진행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태고총림 선암사 선조사 추모다례 개최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주지 시각)는 4월 3일 역대 선조사를 추모하는 추모다례를 봉행했다.

선암사는 매년 봄(음 3월 3일)과 가을(음 9월 9일), 역대 조사들을 추모하는 다례를 봉행하고 있다.

진영당과 응진당에서 봉행한 춘다례에는 태고총림 방장인 지암 스님의 증명과 원로의원 명성 스님, 현호 스님, 시각 스님을 비롯한 소임자 스님들, 문도 스님, 신도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선조사 스님들에 대한 묵념, 주지 시각 스님의 종사영반, 참가 스님과 신도들의 다례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시각 스님은 인사말에서 "매년 다례제를 모실 때마다 선조사님들에 대한 죄송함과 안타까움에 사무쳤지만, 올해는 좀 더 마음이 안정되고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며 "대중스님들이 수행하고 학인들과 행자들이 목표를 정해 공부하는 근간에는 훌륭한 신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고총림 선암사 스님들이 추모다례를 봉행하고 있다.


대관음사 유튜브를 통해 강연하는 우학 스님.

한국불교대학, 유튜브 100만 구독 천명

도심포교도량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온라인을 통한 전법 활동으로 불교 포교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최근 대관음사는 2019년 비대면 법회를 위해 개설한 유튜브불교대학이 구독자수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불교대학 유튜브는 반응이 뜨거웠다. 유튜브 매체에 대해 낯설어하던 기존 불자들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새로운 불자들이 유입되면서 구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구독자 수 10만 명을 돌파하며 유튜브 측으로부터 실버버튼을 받았다. 이 같은 인기는 매일 새롭게 업로드되는 회주 우학 스님의 생활법문을 비롯해 신행상담, 경전강의, 독경 등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우학 스님의 생활법문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일들을 주제로 쉽고 편하게 전하면서 구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관음사의 유튜브 불교대학은 향후 100만 구독자는 물론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대표하는 불교계 유튜브 채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삼론종은 4월 7일 서천 천용사에서 '제6대 종정 혜승 대종사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공덕 지을 수 있는 표상 되겠다"

삼론종 6대 종정 혜승 스님 취임
4월 7일 서천 총무원서 취임법회

삼론종(총무원장 지공 해불)은 4월 7일 충남 서천 천용사내에 위치한 삼론종 총무원에서 '제6대 종정 각몽당 혜승 대종사 취임법회'를 사부대중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혜승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우리가 정말로 공덕을 이루고 삼론종을 만들어 가려면 많은 공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에 공 들이는 이치를 알고 수행을 통해 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하나씩 나쁜 습관을 고쳐가면서 수행한다면 원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공을 덕과 공만 생각하고 공덕을 소홀하게 생각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혜승 스님은 "우리 삼론종 종도들께서 저를 종정 자리에 3번씩이나 추대 했으니 종도들이 많은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제가 먼저 표상이 되겠다"며 "이 소망이 이루어 질 것인가 걱정 반 희망 반이다. 어려운 시기에 종도들을 잘 이끌어 우리 종단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혜승 종정 스님은 1963년 충주 대원사에서 우암 스님은 은사로 득도해 1983년 덕암 스님을 법사로 건당했다. 문화원장, 포교원장, 사정원장, 종회의장, 총무원장 등 종단의 주요 소임을 두루 역임했다. 2012년 제4대 종정에 추대돼 제5대 종정에 이어 제6대 종정으로 재추돼됐다. 현재 는 포천 보문정사에 주석하며 후학 양성에 나서고 있다.

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도 봉행사를 통해 "한평생 오직 수행과 중생 포교에 정진해온 혜승 대종사의 종정 연임을 기쁜 마음으로 사부대중에게 고한다"며 "대종사님의 한 평생은 바로 다보 부처님의 삶이었다. 오늘 추대에 부응해 부처님 역시 이 사바세계를 불국정토로 분명 청정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승정원장 진봉 스님도 축사를 통해 "각몽당 큰 스님의 밝으신 혜안과 온후하신 덕성으로 우리 종단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는다"며 "오늘의 종정 취임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동문, 울진 성금 전달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는 4월 5일 경북 울진군청을 방문해 울진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위문성금과 생활전화기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위문성금과 전화기는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보시한 것으로 위문성금 300만 원과 생활용품 전화기 100대 등이다.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장 성관 스님(하동 와룡사 주지)은 "불시에 재난을 당한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동문회장 성관 스님, 복지원장 강청 스님, 수석부회장 진일 스님, 부회장 덕연 스님, 사무총장 송운 스님, 경북동부종무원장 지공 스님, 재무국장 성혜 스님, 홍보국장 혜정 스님, 사무처장 지아 스님, 10기 정연 스님 등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고종 중앙강원 동문 스님들이 이재민 돕기에 나섰다.